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한 원령공주 캐릭터 분석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시기심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 Analysis of ‘Princess Mononoke’
applied on Object Relation Theory

– Centered on Melanie Klein's Envy –

주저자 : 김동옥(Kim, Dong Ohk)
극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허선호(Heo, Sun Ho)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조교수
hshshs55@hanmail.net

목차

1.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고찰

- 2.1. 대상관계 이론
- 2.2. 멜라니 클라인의 시기심

3. 원령공주 캐릭터분석

- 3.1. 원령공주 작품 속 시기심의 형태
- 3.2. 시기심의 승화자 ‘아시타카’
- 3.3. 시기심이 변형된 ‘산’과 ‘에보시’

4.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대상관계 중 멜라니 클라인의 시기심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생애초기에 주된 양육자와 형성된 대상에 대한 시기심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원령공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의 시기심을 보이고 있다. 첫째, 캐릭터들 간의 시기심은 상호 간 강력한 불안을 감지하는 것으로 작동되며, 파괴성을 지닌 잔인한 구강기 가학성으로 드러난다. 둘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랑과 돌봄의 역할을 하는 ‘아시타카’가 시기심의 승화자로 등장하며, 셋째, 그러한 ‘아시타카’의 역할로 인해 ‘산’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에보시’에게는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삶을 향한 적과의 자원 공유라는 시기심의 변형 형태를 가져온다.

인간의 정신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 어린 시절에 내재화된 대상관계는 성인의 정신생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어린 시절에 감상하는 애니메이션 또한 이러한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만들 수 있고, 어린이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는 성인 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어릴 적 대상관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재화된 대상관계는 관객들과의 공감과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게 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고, 본 논문이 향후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갈등 및 관계 유형 설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기에 그 가치가 있다.

주제어 : 멜라니 클라인의 시기심, 대상관계, 캐릭터, 원령공주

(Abstract)

This study applies Melanie Klein's Envy as the method of characters' analysis on Miyazaki Hayao's animation film 'Princess Mononoke'. We can find the Envy that is formed early in life from the main fosterer in real world of human beings as well as in animation films.

The characters in 'Princess Mononoke' shows Envy with three types. First, Envy between characters is revealed as ill-treated oral period with mutual intense anxiety. Second, 'Ashitaka' has sublimer role of Envy in conflict situation with Love and Support. The last, 'San' realizes the value of herself and 'Evoshi' gets change of Envy with Gratitude and she can share resource with enemy through the role of 'Ashitaka' .

In making mental structure of human, internalized object relation in early childhood affects to adult's mental life. Fictional Animation appreciation also can make those similar relation to both children and adult. Internalized object relation is a key factor to make absorbing and feel sympathy to audience.

Therefore, this study has theoretical value storytelling and character relation setting for hereafter research of animation.

Keyword : Melanie Klein's Envy, Object Relations Theory, Character, Princess Mononoke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은 등장 캐릭터들 간의 관계에 의해 전개된다. 그 관계는 2000년 이후로 점점 복잡해짐과 동시에 관객들은 등장 캐릭터들이 단편적인 성격을 가진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와 흡사한 현실 속 인간과 유사한 사건 전개에 따른 성장과 타락이 있는 입체적 캐릭터들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현 시대와 같은 혼란의 때를 살아가는 대중들은 그들의 불안과 불만의 공격욕들을 대신 해소해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간접적 문화 양식 속의 가상 캐릭터들을 요구하기도 한다.(강효정, 2005, p. 20)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대상관계 중 멜라니 클라인의 시기심은 모든 인간의 생애 초기 경험과 관련이 있어서 관객의 깊은 몰입감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원령공주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무로마치시대는 불안한 현 시대상과 매우 비슷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현실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됨은 물론 캐릭터들 간의 관계 설정을 위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대상관계이론 중 멜라니 클라인의 시기심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캐릭터들 간의 시기심의 양상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드러나는지를 이해한다. 또한, 영상 분석을 통해 미숙한 시기심의 형태를 떠난 캐릭터들이 어떻게 시기심이 변형되는지와 그 변형을 위해 승화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원령공주>이며, 그의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없기에 그의 작품 중 대상관계 이론 적용에 적합한 공격욕과 시기심이 가장 많이 드러난 <원령공주>를 선택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대상관계 이론

인간은 정신세계를 지닌 존재이다. 그래서 느끼고 기억하며 재생하고 조합하며 생각하고 표현을 하면서 살아간다. 정신의 기원이나 속성을 밝히려는 다양한

연구와 이론들 가운데 대상관계이론이 있다.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2002, p, 113)에서는 ‘정신분석 용어사전’을 통해 대상관계 이론을 “마음은 바깥으로부터 획득한 요소들, 즉 다른 사람의 기능 측면들이 내재화된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적 설명체계”로 소개하고 있다. 주체의 정신구조가 형성되기까지 타자와의 다양한 관계경험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초점화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인관계는 주로 어린 시절이다. Clair(2016, p. 17)는 “대상관계이론가들이 전 오이디푸스기의 발달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상관계이론을 파악했다. 국제 정신분석가인 이무석(2003, p. 106)은 대상관계이론의 핵심 내용을 “어릴 때 구체적으로 유아기 시절의 내재화된 대상관계(introjected object relationship)가 그 후 모든 대인관계에서 반복되고 재현된다.”고 설명한다. 대상관계라는 측면에서 자기와 대상이라는 구조는 어느 순간에서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의 개체일 수 있지만 또한 스스로의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관계망이 필요하다.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너’라는 대상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마음의 형성과 관련된다는 것이라면 대상이 지닌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대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Hamilton(2007, p. 23)은 “정서적 에너지, 즉 애정이나 증오 또는 애정과 증오의 좀 더 조절된 결합이 투여된 사람이나 장소, 사물, 개념, 환상 또는 기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감정의 힘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나 장소 또는 사물”은 외부의 대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나 환상이나 기억”은 내면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대상은 주체와의 정서적 관련성 가운데 존재하는 또 다른 주체인 것으로 파악되며, 감정적 연관에 의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변형되어 지각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음을 덧붙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대상관계이론은 어린 시절 특히 전 오이디푸스기에 중요한 사람들과 경험한 내용들이 인간의 심리구조를 형성하고 이 틀을 통해 이후 모든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대상관계이론가 중 Klein이 있다. Gomez(2008, p. 61)는 Klein의 이론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녀는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과 괴리하고자 하는 충동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것을 삶으로” 파악하고자 했

음을 밝혔다. 적어도 오이디푸스시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이러한 갈등의 조절은 개인의 심리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여기서는 Klein이 다른 파괴적인 충동 특히 시기심에 그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2.2. 멜라니 클라인의 시기심

인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복, 성공과 능력을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기도 한다. 즉, 인간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자를 향해 부러움의 눈길을 던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향유할 수 없다면 가진 자와 그 소유물까지 망가지기를 바라는 심리적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기심은 아마도 인간의 보편적 감정일 것이다.

Barrows(2004, p. 9)는 공격적 파멸의 힘을 담고 있지 않은 채 부러워하는 시기심의 형태와는 달리 정신분석에서 지칭하는 시기심은 상대방의 뛰어난 특성을 “공격하게 만드는 파괴적이고 해로운 내면적 힘”과 같은 것이라고 초서의 저서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심은 이러한 정의와 동일선상에 있으며 특히 시기심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Klein의 시기심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인간의 시기심을 심도 있게 다룬 대상관계 이론가인 Klein(1984, p. 176)은 시기심을 “삶의 시작부터 작동하는, 파괴적인 충동들의 구강-가학적이고 항문-가학적 표현”으로 정의한다. 삶이 시작되는 시기라면 세상에 태어난 유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기들은 세상을 어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지한다. Clair(2016 p. 68)는 Klein이 바라본 아기가 맞이하는 세상에 대해 “유아 자신의 파괴성 및 죽음 본능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위험과 불안으로 가득 찬 판타지적 세계, 그리고 정신이상의 세계와 비슷한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가령 유아가 자신의 입으로 음식을 삼키고 씹는 동작은 환상과 더불어 처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고 별다른 욕심 없이 살 것 같은 아기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시기해서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Klein(1984, p. 183)은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최초의 시기심”이라는 형태로 인간 시기심의 첫 출발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 엄마의 젖가슴은 “아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유의 무제한적 공급과 그 젖가슴이 자신의 만족감을 유지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아기가 느끼기 때문”이다. 아기가 자신과 엄마를 두고 판단할 때 현실적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무능력함에 의해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함 그 자체인 것이다.

유아는 엄마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엄마에게서 적절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진 자에 대한 시기심의 활성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유성(2011, p. 125)은 시기심에 대해 보다 깊은 분석을 시도하는 작업 가운데 “시기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으므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 또는 태도”로 그 심리적인 독특함을 다루고 있다. 시기심은 소유하지 않은 것 그래서 누릴 수 없는 것을 지닌 대상과 그 대상의 비연결성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불안과 강한 의존이라는 유아의 현실에서 안정과 풍부한 자원을 지닌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유아의 시기심은 파괴적 행위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Summers(2004, pp. 121–122)는 Klein의 시기심을 소개하면서 시기심은 생명에 필요한 “좋은 대상이 외부에 존재” 하기 때문에 촉발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엄마의 젖가슴에 대해 “증오를 넘어 손상을 입히려는 욕망”으로 전환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Klein이 제시한 시기심은 인간의 “선천적인 공격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제공하는 대상을 향한 격노이며, 좋은 것을 가진 상대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제공받지 못함을 감지하는 과정에서 그 현실적 발생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Greenberg and Mitchell, 1999, pp. 212–213).

Klein이 강한 공격충동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시기심은 한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이미 보유된 정신적 내용물이며 생물학적 및 심리적 생명력의 존속과 융성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춘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갈망의 좌절에 담긴 강력한 파괴적 충동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한 줄기 양심적 가책이나 인정사정도 없이 정신 및 물리적으로 몰아치며 처단하고 파괴하는 다양한 인간 삶의 상황에 시기심이라는 단단한 공격충동이 그 동력의 근원을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도대체 그 무엇이 이 파괴적 힘을 잠재우고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에

직면하게 된다.

그 해답의 과정에 있어서 Klein(1984, pp. 187-188)은 아기가 엄마로부터 “풍부한(full) 만족”을 받았을 경우 감사의 감정이 발생하고 선천적인 공격충동으로서의 시기심이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별다른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했고, 이후 “사랑을 위한 능력의 주요한 파생물이 감사의 느낌”임을 강조했다. Klein의 수제자격인 Segal(1999, p. 168)은 Klein의 이론을 정리하면서 시기심 극복의 핵심에 “사랑과 감사”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정리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음과 그로 인해 생명의 긍정적 유지와 생동감 있는 누림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파괴와 사랑의 양면성을 지닌 인간에게 감사함과 사랑으로 그 삶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지탱되어질 수 있음을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경험적 자원임에는 분명하다.

인간이 세상의 문을 열면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죽음 본능의 또 다른 공격적 형태로서 자신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샘솟게 하는 자원을 지닌 대상에 대한 철저한 파괴적 근성을 다투고 있는 Klein의 시기심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잔인성에 대한 심리적 빌판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사랑이 지닌 시기심의 중화와 변형적 능력은 인간의 무한한 생명 사랑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영화 원령공주에서 펼쳐지는 갈등과 충돌 및 파괴, 그리고 사랑과 회복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Klein의 시기심은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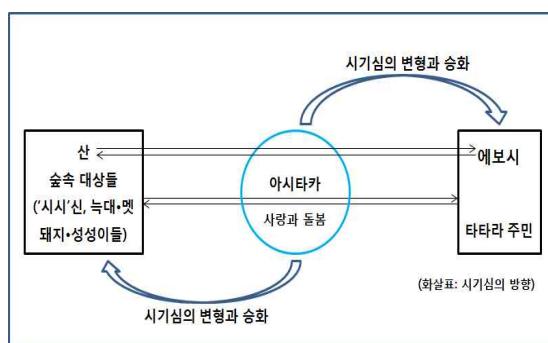
3. 원령공주 캐릭터 분석

3.1. 원령공주 작품 속 시기심의 형태

원령공주는 인간을 향해 돌진하는 재앙 신의 파괴적인 공격 행동을 시작으로 철저한 이분법적 대립과 공격적 구도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러한 관계망 가운데 흐르는 기운은 서로를 향한 중오이다.

조건이 없는 중오의 형태에는 생명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한 파괴성을 포함하고 있다. 금과 들개 혹은 맷돼지와의 긍정적인 생태적 관련성을 무시한 채 짜리를 위한 파괴를 목적으로 그들을 치고 들어가는 ‘에보시’와 ‘타타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는 분노로 불타오르는 들개, 맷돼지들 그리고 성성이들의 대치상황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시기심은 모두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

에 대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 캐릭터들 간 시기심의 대립구도

시기심으로 명명되는 파괴적 본능으로 인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상호 분리 및 대치된 관계는 인간 정신세계의 일부분을 재현한 현실이기도 하다. Klein은 “편집-분열적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 개념을 통해 이러한 인간 정신 구조의 한 단면을 설명하고 있다. Hinshelwood(1991, p. 156)는 Klein의 “편집-분열적 자리”를 정의하면서 주체의 정신세계가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막대한 학대를 받을 것 같은 “박해 불안”에 운통 휩싸여 있음을 가장 먼저 기술하고 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외부적 압력을 감지한다는 것이다. 원령공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죽음을 불사하고 상대를 파괴하려는 대치상황에서 혹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불안의 감지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심과 관련된 양식이 원령공주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본다. 첫 번째 시기심이 작동하는 형태는 상호 간 강력한 불안을 감지하는 것이다. Mitchell and Black(2002, pp. 170-172)은 이에 대한 상기 Klein의 자리 개념을 우리네 삶이 시작되는 단계에서의 경험적 특성을 잘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박해받을 것 같은 불안의 출발점은 주체의 내부에서 비롯되는 선천적인 파괴성에 있고 불안은 그 투사의 결과물이며, 분열은 투사된 박해의 세력으로부터 주체를 지켜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 내부에 이미 태생부터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파괴적 힘으로서의 시기심이 가져오는 적대적 관계의 출발점에 대한 임상적 예견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시기심은 그 파괴성이 지닌 잔인한 구강기 가학성으로 드러난다. 성성이들의 대사 중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 즉, “인간을 먹고 힘을 얻어야해. 인간을 몰아낼 힘이 필요해”라는 그들의 말이다.([그림2]) 인간의 침범과 파괴성으로 인해 둑의 생명력이 지닌 가치는 인간들에게 돌아가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공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진다. 인간은 가치 있는 대상의 내용물을 펴내어 가고 자신들에게는 티끌마저도 나누어주지 않는 잔인한 존재로 비추어진다. 이는 식인 형태를 동반한 살인욕구로 드러나고 있다. 살인과 식인에 대한 생각은 인간을 공격하고자 달려온 맷돼지들에게서도 드러난다. 들개들이 자신의 동료이자 재앙 신이 되어버린 ‘나고’를 먹어버렸다는 것이다. ‘나고’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과 종오로 인해 재앙 신이 된 것인데 동료들은 식인의 재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그림3])



[그림2] 구강기 가학성으로 드러난 성성이들의 시기심



[그림3] 식인 형태를 동반한 시기심의 살인 욕구

왜 이러한 망상과 착각이 발생하는 것일까? 여전히 Klein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시기심으로부터 그 해답에 도달하게 된다. Kernberg(2001, pp. 38–39)는 시기심 곧 “죽음 본능의 표현인 타고난 공격성”의 경우 “무의식적 환상의 형태로 정신 안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강기 활동과 연관해서 “파괴적이며 먹어치우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Klein의 시기심이 지닌 특성을 설

명한다. 따라서 식인에 대한 욕구와 두려움은 인간 깊이 숨겨진 원초적 공격성이 만든 인지의 왜곡으로 귀결될 수 있다. 맷돼지들, 들개들과 ‘산’ 그리고 성성이들의 시기심이 인간 특히 ‘에보시’에게 향해 있다.

시기심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보시’와 ‘산’의 시기심을 촉발하는 대상에 대한 것이다. 먼저 ‘에보시’의 경우 자신의 사업을 위해 숲은 절대적인 좋은 대상으로 파악된다. 이 관점에서 ‘산’과 들개들 그리고 맷돼지들은 좋은 대상을 독차지하고 나눠주지 않으려는 측면에서 시기심을 초래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좀 더 깊숙이 접근을 해볼 때 시기심의 근원은 ‘시시’ 신을 지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둑이 지닌 생명력의 근원은 ‘시시’ 신이 관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보시’의 둑에 대한 정별 욕망은 급기야 ‘시시’ 신의 목을 베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림4])



[그림4] 시기심의 근원인 ‘시시’ 신의 목을 벤 에보시

‘산’의 시기심은 인간을 향하고 있다. 그녀는 인간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원천인 엄마로부터 외면당한 생명인 것이다. 더군다나 ‘에보시’는 ‘타타라 마을 주민들’을 극진히 돌보고 그들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 상으로 등장한다. ‘타타라’ 마을에 잠입한 ‘산’이 많은 적들이 에워싼 집단 속으로 칼을 들고 과감히 뛰어든 것은 바로 자신에게는 전혀 허락되지 않는 엄마의 사랑과 그것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에보시’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그림5]) Hinshelwood(2006, pp. 216–217)는 Klein의 시기심을 다루면서, 주체에 대한 파괴를 시도하는 죽음 본능이 외부 대상에게로 전치된 형태 즉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활성화시키는 일에 매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대상을 향한 종오로 시기심을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시기심이 지닌 파괴력은 자신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존재

와의 의존적 관계 양상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훼손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에보시’에 대한 ‘산’의 입장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림5] 엄마의 상징적 재현인 ‘에보시’를 향한 ‘산’의 시기심

원령공주에서 드러나는 시기심은 잔인한 구강기 가학성을 띠고 있고 이 파괴적 공격성의 투사로 인해 대치되는 세력들 간에 죽음의 진한 기운이 감돌며 곳곳에서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시기심의 원천은 ‘에보시’의 경우 숲과 ‘시시’ 신이 해당되고 ‘산’과 들개들 그리고 맷돼지들과 성성이들은 인간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산’의 시기심은 구체적으로 엄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에보시’의 모성적 역할과 그에 대한 잔혹한 파괴적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과 ‘에보시’의 시기심은 원령공주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시타카’의 영향으로 이들의 시기심은 변형되고 극복되기 시작한다.

3.2. 시기심의 승화자 ‘아시타카’

원령공주에서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을 공격과 파괴로 풀어내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시타카’이다. ‘아시타카’는 갈등의 상황을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인 ‘사랑과 돌봄’으로 풀어낸다. 그로 인해 ‘산’과 ‘에보시’의 강렬한 시기심이 변형되어진다. ‘아시타카’의 모습은 타자의 시기심이 완화되고 변형되는 전 과정에서 소위 시기심의 승화와 그로 인해 타자의 삶을 새롭게 변모시킨 인물이다. 그렇다면 ‘아시타카’는 시기심과는 무관한 인물인가? 그렇지 않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의 승화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인물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으로 볼 때 시기심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획득되어진 파괴적 공격욕이다.

여기에 ‘아시타카’라고해서 예외일 수 없다. 그 역시 전투의 현장에서 여지없이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색다른 특징이 있다. 그의 공격에는 대상에 대한 배려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즉 그는 대상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영화가 시작되면서 벌어지는 재앙 신과의 전투에서 재앙 신을 향해 ‘멈춰요! 왜 마을을 덮치려는 거죠?! 멈추시오! 진정하시오!’라는 말을 한다.([그림6]) 그에게는 시기심의 광중에 대해 자아 동조적 특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공격성이 시기심으로까지 치닫지 않고 현실적인 자기 방어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시기심으로 강한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아시타카’는 자신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모로’에게 숲과 사람이 대치와 파괴적 전투를 하지 않고 해결가능한 길을 묻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토대는 무엇일까? 물론 상기에서 살펴 본바 Klein의 대답은 사랑을 받고 이에 대한 감사의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그림6] 재앙신의 시기심을 제지하는 ‘아시타카’

Klein(1984, p. 188)은 사랑의 경험과 그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내포된 관계경험에서는 “좋은 관계를 비축하고 보존하려는 소망이 우세” 하게 작용한다고 했고,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사랑하고 보호하며 자기에 의해 사랑받고 보호받는” 좋은 대상에 대한 믿음이 구축될 때 이로 인해 “자신의 선함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했다. 좋은 관계가 내재화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동감 있는 삶을 제공하고 자신과 타자에 대한 좋은 관계에 대한 믿음과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마련해준다. ‘아시타카’가 다양한 곤경에서도 자신과 타자에 대한 선함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분명 시기심이 이미 승화를 이룬 과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시기심의 승화는 상기 Klein의 이론에서 제시되었듯이 생명과 긍정을 지향하는 자아의 강함으로 인해

위기의 상황에서도 시기심이 가져오는 무제한적 폭력 성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다. ‘아시타카’의 오른 팔은 재앙 신과의 싸움에서 재앙 신의 피(저주)로 인해 오염되었다. 이는 재앙 신의 강한 파괴적 시기심 일부가 ‘아시타카’에게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7])



[그림7] 재앙신의 시기심이 전이된 ‘아시타카’

천연의 숲에서 ‘시시’ 신을 처음 보았을 때 죽음과 파괴의 세력이 자리 잡은 오른팔이 미친 듯이 요동을 치는 장면, ‘타타라’ 마을 사람들에게 ‘에보시’가 숲을 태우고 맷돼지 떼를 죽인 이야기를 들을 때, ‘에보시’ 와의 대화에서 ‘에보시’가 죽은 맷돼지 신 ‘나고’에 대한 평가절하 시, ‘에보시’와 ‘산’의 결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추격병과의 전투에서 여전히 그 파괴성은 요동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기심의 원천적 에너지는 ‘아시타카’의 타자를 향한 긍정적 행로를 방해하지 못했다. 나아가 가장 갈등적인 세력으로 대치되고 있었던 ‘산’과 ‘에보시’의 시기심에 긍정적 변형이 이루어지도록 돋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아시타카’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 ‘히이’는 ‘진실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간파해야만 재앙 신의 저주 곧 시기심을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고 ‘아시타카’에게 당부한다. 또한 그는 ‘에보시’ 와의 대화에서 총과 총알의 비밀을 ‘진실의 눈’으로 직접 파악하겠다고 한다.([그림8]) 이는 시기심의 강한 역동에 동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기심의 승화자로서의 ‘아시타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기심의 승화자 ‘아시타카’의 영향을 통해 ‘산’과 ‘에보시’가 지난 시기심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살펴보자 한다.



[그림8] 시기심의 승화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아시타카’

3.3. 시기심이 변형된 ‘산’과 ‘에보시’

시기심의 변형과 승화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으로는 앞서 살펴 본대로 감사와 사랑이라는 정서적 요소가 있다. 원령공주에서 이 두 요소가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시기적 파괴성의 절정을 이룬 등장인물은 ‘산’과 ‘에보시’이다.

‘에보시’의 가장 큰 적은 숲의 접근과 활용을 무력으로 막고 있는 늑대들과 맷돼지들이며, ‘지코’ 일당에 대한 숨은 적개심과 의심이기에 오히려 ‘산’에 대한 공격은 보다 이차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을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가로채려는 자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번창을 책임지려는 특성으로 볼 때 숲에 대한 접근이 더 우선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근본적으로 숲의 자원에 대한 시기심과 자원 획득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즉 숲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기심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아시타카’의 개입은 또 다른 제지가 되고 있지만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그의 개입은 그녀의 시기심을 변형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아시타카’는 ‘산’과 ‘에보시’의 결투를 말리면서([그림9]) ‘나고’로부터 자신에게 전이된 중오 가득한 시기심의 모습을 알리며 그 중오로부터 모두가 벗어나기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시시’ 신의 목을 가져오기 위해 나선 ‘에보시’를 향해 숲과 ‘타타라’ 마을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다. ([그림10]) 즉 시기심을 억제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긍정적 관계로의 전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팔을 다친 ‘에보시’를 무사히 살려내는데도 도움을 주고 분노에 찬 ‘시시’ 신의 재앙에서 ‘타타라’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구해내는데도 일조한다. 이는 ‘에보시’의 생명 일부를 구해낸 업적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9] ‘산’과 ‘에보시’의 시기심을 중재하는 ‘아시타카’



[그림10] ‘에보시’의 시기심 변형을 촉구하는 ‘아시타카’

‘에보시’의 시기심과 그 파괴적 행동 앞에서도 ‘에보시’ 자신과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아시타카’의 태도와 행동에 ‘에보시’는 급기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 감사의 범주에는 지금까지의 시기심의 파괴적 목표였던 들개들까지 포함한다. ‘에보시’의 시기심이 궁정적으로 변형되면서 최대의 적이었던 들개와의 관계마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Barrows(2004, p. 34)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도 공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에보시’는 이제 스스로가 지닌 관계형성 능력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아군이 된 적에게서 새로운 삶을 향한 능력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그림11])



[그림11] 감사를 통해 시기심이 변형된 ‘에보시’

원령공주의 스토리 전개 과정 내내 매우 뚜렷하고 강한 시기심을 보여주었던 캐릭터 ‘산’은 ‘아시타카’를 통해 비로소 그 무거웠던 시기심의 외투를 벗게 된다. 인간과 인간적 삶의 근원으로부터 벼름을 받고 모성에 대한 시기심 가득했던 ‘산’에게 그 파괴적 중오로 굳어진 마음에 빛장을 풀게 된 계기는 ‘산’의 생명에 대한 ‘아시타카’의 존중에서부터이다. ‘에보시’를 처단하고자 했던 계획의 실패로 ‘산’은 ‘아시타카’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당신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아시타카’의 표현을 통해 ‘산’은 자신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만나게 된다. ([그림12]) 나아가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들개의 일족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내왔던 그녀는 ‘아시타카’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인간다움과 결부되는 존재임을 확인받게 된 것이다. 이 관계경험은 ‘산’으로 하여금 인간과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을 지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신은 아름다워.”



[그림12]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산’

‘산’에게서 발견되는 새로운 변모는 ‘아시타카’와 그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드러난다. 총상으로 의식을 잃은 ‘아시타카’를 부축해 숲의 물을 건넌 후 그녀는 팔의 냄새를 맡으며 “인간의 냄새가 난다”고 한다. 이 말은 그동안 억압되었던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에 대한 애착의 궁정적 회복력의 활성화를 기대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잘 씹지 못하는 ‘아시타카’에게 입에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한다. ([그림13]) ‘산’은 이 과정에서 ‘아시타카’의 눈물을 본다. ([그림14]) 그 결과, 인간에 대한 중오와 파괴를 담은 시기심은 매우 완화되고 그 자리에 인간 생명에 대한 애착과 자신의 과오로 인해 파괴되어져 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보상적 노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림13] ‘아시타카’에게 음식을 공급하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애착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보상적 노력을 하는 ‘산’



[그림14] ‘아시타카’의 눈물을 통해 인간에 대한 증오와 파괴를 담았던 시기심이 완화된 ‘산’

특정 대상에 대해 무조건적 파괴성을 지닌 일방향적 양상에서 애착의 주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상이 지난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고 이는 대상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형태에서 보다 전체적인 접촉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Ulanov(1999, pp. 30-31)는 “신데렐라와 그 자매들”에서 Klein의 시기심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시기심을 다루면서 “시기심은 대상을 해치고 망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결코 대상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을 보며, 원하는 부분에 집착하고, 대상을 그 부분으로 환원시킨다.”고 파악했다. ‘산’이 ‘아시타카’를 시기심에 이어 애착이라는 측면으로 대한다는 것은 부분적 관계에서 보다 통합적인 관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시기심이 그만큼 완화되고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요소의 양 측면이 동시에 다루어질 수 있음을 여전히 시기심 또한 일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시 ‘산’은 ‘예보시’를 구한 ‘아시타카’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다시금 그녀의 시기심이 활성화된 것이다. ‘아시타카’는 여전히 시기심의 역동에 참여하지 않고 “미안해,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어.”라고 말하며 함께 힘을 합쳐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산’에게 새로운 용기를 선사한다. ([그림15]) 이때 ‘산’의 시기심은 ‘아시타카’의 사랑으로 더 완화되고 변형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산’은 ‘아시타카’와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에 대한 애정을 전한다. 물론 인간 자체를 용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면서 만남과 소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것이다. ([그림16]) 이는 시기심의 세력보다 사랑의 힘이 더 우월함을 그녀 내부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Kernberg(2001, p. 40)는 Klein과 그 학파의 이론을 정리하면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 관계경험을 통해 그러한 경험을 안겨다 준 대상에 대한 신뢰 형성과 강화를 가져오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시기심의 변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아시타카’가 보여준 사랑과 친밀성 그리고 관대함과 돌봄으로 점철되는 좋은 관계 경험은 ‘산’의 인간에 대한 시기심의 변형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그림15] ‘산’의 시기심의 활성화를 막는 ‘아시타카’



[그림16] 인간에 대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 둔 ‘산’

4. 결 론

생애초기에 주된 양육자와 형성된 대상관계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작품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간의 대상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멜라니 클라인의 시기

심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원령공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의 시기심을 보이고 있다. 첫째, 캐릭터들 간의 시기심은 상호 간 강력한 불안을 감지하는 것으로 작동되며, 파괴성을 지닌 잔인한 구강기 가학성으로 드러난다. 둘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랑과 돌봄의 역할을 하는 ‘아시타카’가 시기심의 승화자로 등장하며,셋째, 그러한 ‘아시카타’의 역할로 인해 ‘산’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에보시’에게는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삶을 향한 적과의 자원 공유라는 시기심의 변형과 승화형태를 가져온다.

모든 애니메이션 작품 속 캐릭터들 간의 관계를 멜라니 클라인의 시기심에 근거한 대상관계 유형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관계가 인간의 실제 삶과 똑같은 대상관계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은 인간의 현실적 삶에 이야기의 근원을 두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 논문이 향후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갈등 및 관계 유형 설정에 이론적 근거로써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 가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효정. (2005).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적용연구-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웃집 토토로>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양유성(2011). 시기심의 심층분석. **복음과 신학.** 13.
- 이무석(2003).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도서출판 이유.
- Barrows, K. (2004). **시기심.** (김숙진 역), 서울: 이제이북스.
- Clair, M. St. (2016).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안석모 역), 서울: 센케이지러닝코리아(주).
- Gomez, L. (2008). **대상관계이론 입문.** (김창대, 김진숙, 이지연, 유성경 역), 서울: 학지사.
- Greenberg, J. R. & Mitchell, S. R. (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Hamilton, N. G. (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역), 서울: 학지사.
- Hinshelwood, R. D. (1991). *A Dictionary of Kleinian Thought.*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 Hinshelwood, R. D. (2006). **임상적 클라인: 이론과 실제.**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Kernberg, O. (2001). **내면세계와 외부현실: 대상관계이론과 그 적용.**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Klein, M. (1984). **Envy and Gratitude and other works, 1946–1963.** NY: Free Press.
- Mitchell, S. A & Black, M. J. (2002). **프로이트 이후: 현대정신분석학.**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Segal, H. (1999).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Summers, F. (2004).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002). **정신분석 용어사전.** (이재훈 외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Ulanov, A. and Ulanov, B. (1999). **신데렐라와 그 자매들: 인간의 시기심.**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원령공주(모노노케 히메)DVD] 대원 C&A 홀딩스. 관람등급: 전체 관람가. 2003년 7월 제작.

전자우편: hshshs55@hanmail.net

원고접수일: 2017년 5월 27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12일

게재결정일: 2017년 6월 22일

3명의 익명(匿名)에 의한 심사.